

인천 경제산업 ISSUE&TREND

제23-4호 (2023.05.2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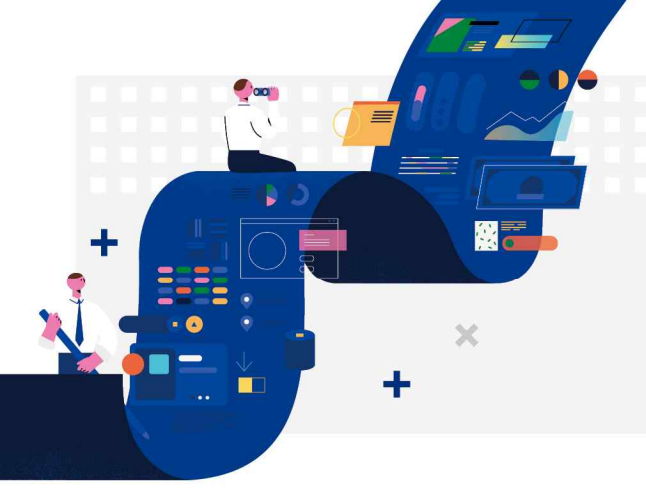
■ 이 슈

(창업)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유니콘
기업의 중요성

■ 주요 산업 현황

(제조)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

■ 국내 정책동향



인천 경제산업 ISSUE&TREND

제23-4호 (2023.05.26)

Cotents

I. 이 슈

(창업)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유니콘 기업의 중요성 1

II. 주요 산업 현황

(제조)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6

(부록)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9

III. 국내 정책동향

(건설) 건설현장 불법하도급, 채용강요 등 단속·처벌 강화 10

(교통) 국토교통부, 도심항공교통(UAM)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 추진 10

(금융)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, 5대 은행 확대 시행 11

(창업) 생활·로컬 분야서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'라이콘' 육성 11

(교통) 광역버스 좌석예약, 8월까지 50개 노선으로 확대 12

(국토) 항만물류 규제개선을 통해 배후단지 개발 활성화 12

(산업) 김·참치 이을 'K-블루푸드' 발굴을 통한 수출기업 육성 13

(관광) 여행가는 달 6월, 국내 여행 혜택 발표 13

연구진

최태림	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
민규량	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
상민경	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
김효영	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

창업
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유니콘 기업의 중요성


#신생기업 #벤처기업 #유니콘기업 #신기술 #글로벌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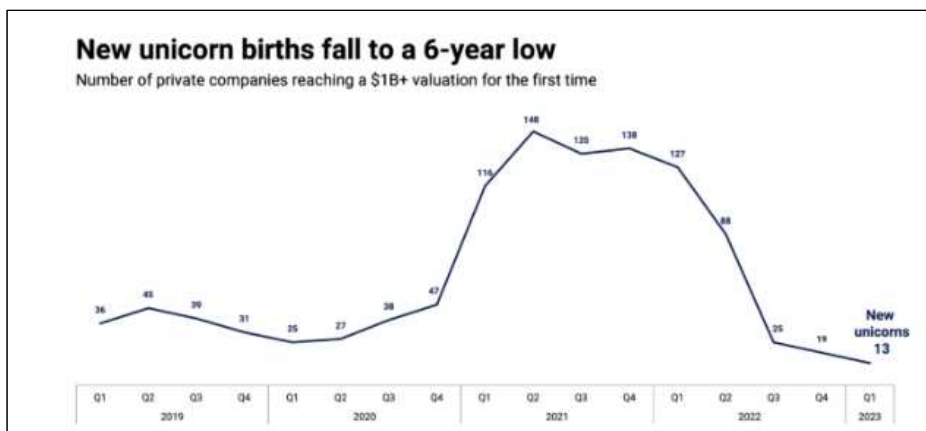
- 지난 5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니콘 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‘초격차 스타트업 1000+ 프로젝트’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출정식을 개최하여 프로젝트의 성공을 다짐¹⁾
 - ‘초격차 스타트업 1000+ 프로젝트’는 향후 5년간 2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초격차 기저기술(딥테크) 스타트업이 거대신생기업(유니콘 기업)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관 합동으로 주도 스타트업 육성사업
 - 10대 신산업분야로는 △시스템 반도체 △바이오헬스 △미래 모빌리티 △친환경·에너지 △로봇 △빅데이터·AI △사이버보안·네트워크 △우주항공·해양 △차세대원전 △양자기술 등이 선정되었으며, 총 1,00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
 - 프로젝트 첫해인 올해 말까지 신산업 스타트업 및 딥테크 팀스 총 270개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, 이를 위해 1차로 신산업분야에서 150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
 - 신규 선정 스타트업은 향후 3년간 최대 6억 원의 사업화자금 및 기업 수요에 따른 5억 원의 R&D 자금 등 총 11억 원의 자금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정책자금·보증·수출 등에 대해서도 연계하여 지원
- “유니콘(Unicorn) 기업”이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(약 1조 원)를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전설 속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하여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상징하는 단어
 - 2013년 카우보이 벤처스(Cowboy Ventures)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에일린 리(Aileen Lee)가 2003년 이후 창업한 스타트업 중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 39개 기업을 ‘유니콘클럽’으로 분류하는 글을 IT전문 매체인 ‘테크 크런치’에 기고한데서 비롯²⁾
 - 유니콘 기업은 최신 ICT 기술과 접목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, 기존 벤처기업과 다르게 기업공개(IPO) 등 일반적인 성장경로를 따르지 않는다는 차이점 존재
 - 최근의 산업생태계는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유니콘 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, 이들 기업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 될 것으로 기대
 - 2018년 PWC는 2017년 전세계 GDP의 4.5%를 차지하고 있는 정보기술 분야가 향후 15~20년 내에 8%로 증가할 것이며, 이러한 서장의 중심을 스타트업이 담당할 것으로 전망³⁾

1) 동 출정식은 새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정과제 관련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, 초격차 프로젝트의 성공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.

2) 초기에는 ‘상당하지 않은 스타트업의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것은 전설 속 유니콘처럼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, 글로벌 기술 스타트업 전반에 걸쳐 빠르게 대중화.

3) POSRI(2018).

- 2020~2021년에 유니콘 기업이 급속히 늘어난 주요 원인은 △전세계적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△코로나19가 촉발한 디지털 전환 추세 △플랫폼 사업의 결실 등
 - 그간의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자산가치가 높아졌으며, 코로나19 시기의 주식시장과 기업공개(IPO) 시장도 호황
 - 기술 기반 창업에 대한 벤처투자 확산과 벤처 창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변화 역시 스타트업의 발생과 성장에 영향
 - 초기에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수익모델이 궤도에 오르면서 유니콘 기업으로 격상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
 - 코로나19 시기 동안 비대면을 기반으로 한 주문·배송·진료 시스템이 확산되며 디지털 도구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진 부분이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 증가에 영향
 - 다만, 2022년 3월 이후 미국을 시작으로 대다수의 국가에서 기준금리가 상승하며 벤처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자금회수 위험성 및 기술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가 증대
 - 단기간의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라 △유동성 축소 △실물경기 둔화 전망 △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벤처 시장 둔화 요인이 산재



* 자료 : CB insights, "\$1B+ Market Map: The world's 1,206 unicorn companies in one infographic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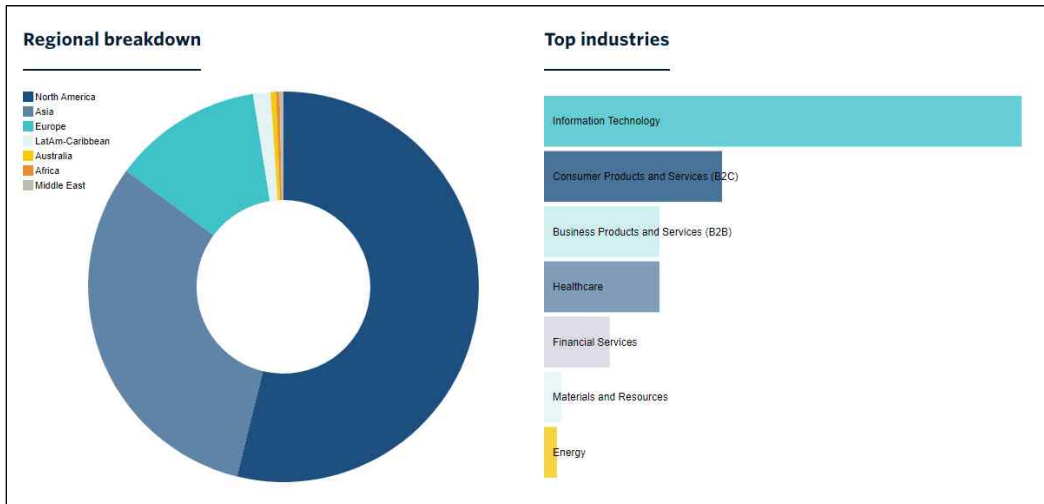
[그림 1] 분기별 신생 유니콘 기업 수(Global)

- 2023년 5월 기준 전 세계에는 인공지능(AI), 이커머스(E-commerce), 핀테크(Fintech) 등 다양한 분야에 총 1,280개의 유니콘 기업이 존재하며, 현재 유니콘 기업 전체의 시가총액은 약 4천조 달러(\$4.0T) 수준⁴⁾
 - 전 세계 51개국에 퍼져있는 유니콘 기업 시장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, 총 유니콘 기업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
 - 유니콘 기업이 가장 많은 국가는 △미국(682, 53.3%) △중국(243, 19.0%) △인도(61, 4.8%) △영국(43,

4) 전 세계 유니콘 기업 목록은 CBinsight(<https://instapage.cbinsights.com/research-unicorn-companies>)에서 확인 가능.

3.4%) △독일(27, 2.1%) 순이며, 한국은 14개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여 시장점유율 1.1%로 싱가포르와 공동 10위⁵⁾

- 반면 기업가치로 따지면 △중국의 바이트댄스(ByteDance, \$360B) △중국의 앤트그룹(Ant Group, \$200B) △미국 스트라이프(Stripe, \$152B) △미국 스페이스X(SpaceX, \$100B) 순
- 유니콘 기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군은 IT(Information Technology)로 총 778개 기업의 시장가치가 약 2,900조 달러로 추산되고 있으며, B2C(290개, 1,200조 달러), B2B(188개, 510.8조 달러) 등



* 자료 : PitchBook, "Unicorn compaines tracker", 2023.05.01.

[그림 2] 전세계 유니콘 기업의 지역별 비중 및 주요 산업군

- 세계 각국에서는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국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 중⁶⁾
 - 미국은 2011년 이후 '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(Startup America Initiative)'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, 2017년 백악관 산하에 '미국혁신국(Office of American Innovation)⁷⁾'을 설립하여 스타트업을 지원
 - 동 정책은 △신규펀드 조성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△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△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멘토링 △패스트트랙 특허처리제도 신설 △스타트업을 위한 외국인 비자 제공 △연구결과 이전 및 과학자의 Innovation corps 프로그램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
 - 중국은 2015년 모든 사람이 창업과 혁신을 추진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혁신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'대중창업 만중혁신(쌍창, 双创)' 정책을 수립하고, '혁신창업을 위한 쌍창 정책 발전에 대한 제안⁸⁾' 및 '쌍창 5대 방안⁹⁾' 등 이를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해나가며 창업지원 정책을 추진

5) 한국 기업 수와 관련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(23.02.09) 참고.

6) 해외 정책의 경우 다수의 타 기관 보고서를 참고 및 재정리하여 작성.

7) 미국혁신국은 혁신사업에 대한 제안, 규제-절차의 개선, 미래인력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집중 수행.

8) △창업 인큐베이터 적자생존 현상 예방 △감세 정책 혜택 확대 △지적재산권 담보를 통한 융자 장려 △고효율 금융 지원 △산업 인터넷망 건설 확대 등 국가의 창업지원 방향성을 제시(2018.12).

9) '쌍창'을 기반으로 한 △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취업활성화 △인큐베이팅 및 연구개발비 공제 등 과학기술 혁신 촉진 △플랫폼 구축으로 대·중·소기업 융통(融通) 발전 △인터넷+ 업그레이드 추진 △영세기업 융자 혜택 등의 지원책 마련(2019.06).

- 영국은 2011년 ‘스타트업 브리튼 이니셔티브(Startup Britain Initiative)’을 통해 대학이 자체 기업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창업을 유도하며,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시작
 - 2013년 ‘Small Business : GREAT Ambition’의 발표를 통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스케일업을 지원하고, 2014년에는 영국 내 창업·성장 지원을 통한 고성장·지속성장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세계 최초로 스케일업 육성 전담기관인 ‘Scale Up Institute’를 설립
- 독일은 이전부터 기술창업 중심 미텔슈탄트(중소기업)에 대한 지원을 진행해온 국가로, 1997년 시작한 ‘엑시스트 프로그램(EXIST)’, 2008년 시작한 ‘종합혁신프로그램(Central Innovation Programme for SMEs, ZIM)’ 등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지원 및 자금지원을 수행
- 일본은 2022년 11월,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확대하고 성과물의 사회 환원을 실현하는 스타트업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「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(안)」을 발표하였으며, 이외에도 경제산업성, 문부과학성, 중소기업 등 정부기관에서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수행
 - 동 계획은 2027년까지 연간 벤처투자액을 10조 엔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을 포함한 △스타트업 창출을 위한 인재·네트워크 구축 △스타트업을 위한 자금공급 강화 및 출구전략 다양화 △오픈이노베이션 추진의 3가지 핵심 추진 사항을 제시

○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3월 ‘제2벤처 붐 확산전략’을 시작으로,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매년 신생 및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

-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의 ‘2023년 초격차 창업기업(스타트업) 1000+ 정책’, ‘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’, ‘예비유니콘 특별보증’ 등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미래의 유니콘 기업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
 - ‘아기유니콘’ 및 ‘예비유니콘’이란 국내에서 현재 유니콘 기업은 아니지만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스타트업을 지칭하는 명칭으로,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
 - ‘아기유니콘’은 △업력 7년 이내 △누적 투자실적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조건을 충족하고 혁신적인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기업가치 1천억 원 미만의 창업기업을 의미(창업 초기단계)
 - ‘예비유니콘’은 시장성 검증, 성장성, 혁신성¹⁰⁾을 모두 갖춘 기업가치 1천억 원 이상, 1조 원 미만의 창업 중기단계 기업을 의미
-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‘2022년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’, 중소벤처기업부·금융위원회의 「혁신 벤처·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」, 기획재정부의 ‘TIPS(민간주도 벤처·창업지원) 프로그램’, 교육부의 ‘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’ 및 ‘청소년 창업경진대회’ 등 관련 부처에서도 별도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·성장 지원 정책 수행

10) ‘시장검증’, ‘성장성’, ‘혁신성’은 각각 △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50억(30억) 원 이상(누적) 투자유치 △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 원 이상 증가(2020년 이전 설립한 기업의 경우 최근 3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% 이상) △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을 기준으로 구분.

[표 1] 국내 주요 유니콘 기업 육성 관련 정책

정책명	주요 내용
2023년 초격차 창업기업(스타트업) 1000+ 정책 (23.01)	• (기간) 선정 후 약 5년 • (대상) 10대 신산업 분야의 업력 10년 이하 기술기반 스타트업 • (지원) 향후 3년간 최대 6억 원의 사업화자금 및 기업수요에 따른 5억 원의 R&D 자금, 정책자금·보증·수출 등을 연계 지원
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-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(23.03)	• (기간) 2019년 이후 매년 시행, 1년 지원 • (대상)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중 누적 투자유치 실적 20억~100억 원 미만인 기업 • (지원) 최대 3억 원 시장 개척자금, 최대 50억 원 특별보증, 최대 100억 원 정책자금 등 기존 지원 10가지, 해외시장 진출 지원, 클라우드 협업 등 기업수요 맞춤 지원
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-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(23.03)	• (기간) 2019년 이후 매년 시행 • (대상) 하한 중 1개 이상 해당 - 혁신성, 성장성, 시장검증을 모두 갖춘 기업, 기업가치 1,000억 원 이상 기업, 지역 스타기업 • (지원) 최대 200억 원 특별보증, 해외시장 진출, 글로벌 투자유치, 정책금융기관의 투·융자 등

* 자료 : 정부 보도자료 참고 및 재구성

- 국내 유니콘 기업 및 예비유니콘은 대부분 서울·경기에 집중되어 있으며, 인천시 관내에는 ‘(주)물라(mulaware, 부평구 소재)’ 1개社만 예비유니콘으로 선정(2020년)¹¹⁾
 - 역대 국내 유니콘 기업의 소재지는 서울 26곳, 경기 남부 3곳, 제주 1곳이며, 2023년 5월 기준 K-유니콘(www.k-unicorn.or.kr)에 따르면 200개 아기유니콘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126곳, 경기 43곳, 부산 6곳, 대전 5곳, 대구·광주 각 4곳, 인천·충북·제주·경남 각 2곳, 울산·전북·충남·경북 각 1곳 수준
 - 인천에는 중구에 소재한 4PL 물류기업인 위킵(WEKEEP, 2013년 설립)과 연수구 소재 심혈관 시술용 의료기기 전문 연구개발기업인 도터(DOTTER, 2016년 설립)가 아기유니콘 기업으로 선정
- 인천의 경우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교육, 투·융자, 멘토링 지원 등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, 고도성장기에 들어선 스타트업을 위한 지역의 여건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¹²⁾되므로, 고도성장단계에 들어선 창업기업의 스케일업(Scale-up)을 위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
 - 2023년 3월 인천시는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,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‘2023년 창업정책 시행계획’을 수립하여 창업인프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
 - 동 정책 이전에도 ‘도심항공교통 분야 유니콘 기업 발굴·지원사업’, ‘인천지식재산 제3호 투자조항 결성·운영사업’ 등을 다양한 지역사업을 통해 유니콘 기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, 아직까지는 창업기업의 고도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서울 및 경기 등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판단
 - 또한 지역 소재 창업기업의 고성장을 위해서는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더해 지역 소재 기업들의 참여 독려 및 지원산업 분야의 지역 전략산업화가 동반되어야 할 필요

11) 2023년 5월 22일 기준 전국에 총 96개 예비유니콘 기업이 있으며, 서울(66), 경기(17), 대구·대전(3) 등지에 소재.

12) 매거진한경(2021), 경기일보(2022).

제조 >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



#화장품 #기타 화장품 #의약품

- 2023년 4월 기준 바이오산업은 화장품 및 바이오헬스 분야의 수출액이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며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약보합세로 전환
 - 화장품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수요가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더디게 회복되고 있으며, 한중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화장품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4.7% 감소
 -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포괄하는 바이오헬스 부문은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위탁생산이 재가동되며 수출 물량이 확대되고 있으나,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각국 의료시설이 정상화되고 원료 및 완제 의약품에 대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출액이 크게 감소¹³⁾
 - 다만 이는 지난 2022년 4월 바이오헬스 분야의 수출이 평년 대비 크게 성장했던 기저효과와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

[표 1] 국내 바이오산업 수출 추이

(단위 : 백만\$, %)

구분	'22.09	'22.10	'22.11	'22.12	'23.01	'23.02	'23.03	'23.04
화장품 (증감률)	739 (-15.3)	689 (-13.6)	638 (-26.6)	594 (-13.9)	468 (-17.1)	646 (12.5)	775 (9.5)	684 (-4.7)
바이오헬스 (증감률)	1,322 (-5.0)	1,060 (-19.5)	1,022 (-27.8)	1,246 (-34.1)	1,113 (-33.6)	1,067 (-32.4)	1,200 (-35.1)	1,026 (-18.3)
의약품 (증감률)	850 (24.6)	638 (-2.9)	560 (-20.0)	721 (-34.2)	675 (-39.8)	603 (-42.1)	731 (-44.9)	592 (-26.8)

* 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 '월별 수출입동향(2023.05.01.)' 참고 및 재구성

* 주1 :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, 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로 표기

2 :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

- (전국) 국내 바이오 관련 산업생산지수는 분야에 따라 경기흐름이 다르게 나타나는 가운데, 수출은 품목에 관계없이 약보합세를 유지
 - (생산지수) 2023년 3월 국내 화장품 관련 생산지수가 약보합세를 보이는 반면, 의약품 생산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

13) 산업통상자원부, '월별 수출입동향(2023.05.01.)'.

- 2023년 3월 화장품 관련 전국 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.5% 감소한 94.2로 202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90대 이상을 기록했으며, 전월 대비 9.2% 증가하며 하락세가 개선
- 2023년 3월 의약품 제조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17.7% 전년 동월 대비 14.5% 증가한 134.4로, 경기의 회복세 및 성장세가 뚜렷
- **(품목별 수출액)** 2023년 4월 화장품부문 및 의약품부문 모두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저조한 수출실적을 기록
 - 화장품 및 기타 화장품의 수출액은 전월 대비 각각 11.8%, 24.8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역시 감소하였는데, 이는 화장품 분야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
 - 의약품 수출액은 전월 대비 16.1%, 전년 동월 대비 24.3% 감소한 612,991천 달러로, 2022년 10월 이후 7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

○ **(인천)** 2023년 3월 기준 인천지역의 바이오 관련 산업생산지수는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나, 수출실적은 품목별 차이

- **(생산지수)** 2023년 3월 기준 화장품 관련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13.3% 증가한 113.2로, 전년 동월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며, 의약품 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크게 개선(20.8%)된 133.7을 기록
- **(품목별 수출액)** 2023년 4월 인천지역 화장품 및 의약품 수출은 약보합세를 보이며 안정되고 있으나, 기타 화장품 수출은 여전히 큰 폭의 등락을 반복
 -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7.0% 감소, 전월 대비 5.0% 증가하였으나, 기타 화장품의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87.8% 감소했을 뿐 아니라 전월 대비로도 74.0% 감소
 - 의약품 수출액은 전월 대비 0.3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33.3% 증가하여, 각 품목을 합산한 바이오산업 총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.6% 증가한 479,564천 달러로 전국 수출액의 약 36.9%를 차지

[표 2] 국내 바이오 관련 산업생산지수 및 증감

지역	항목	'22.12	'23.01	'23.02 (p)	'23.03 (p)	'22.03	전월비 (%)	전년 동월비 (%)
전국	화학물질 등 제조업	87.8	87.7	86.3	94.2	117.0	9.2	-19.5
	기타 화학제품 제조업	75.9	70.8	71.2	78.7	126.1	10.5	-37.6
	의약품 제조업	123.4	117.2	114.2	134.4	117.4	17.7	14.5
인천	화학물질 등 제조업	105.4	92.2	99.9	113.2	112.4	13.3	0.7
	의약품 제조업	133.7	116.5	108.3	133.7	110.7	23.5	20.8

* 자료 : 통계청 '광업제조업동향조사 - 시도/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(2020=100)' 참고 및 재구성

* 주1 : 산업생산지수 파악에 활용한 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, '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(C20)' 및 '기타 화학제품 제조업(C204)', '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(C21)'의 자료를 이용함. 인천지역 자료는 '기타 화학제품 제조업'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상위 항목을 이용

2 :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원지수를 이용하였으며,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



[화학품(MT12273)]



[기타 화학품(MT12279)]



[의약품(MT12262)]

* 자료 : K-stat 무역통계 ‘국내 품목 수출입 통계’ 자료 참고 및 재구성

* 주1 : 수출 금액은 1,000\$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,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

[그림 1] 바이오 품목별 수출 동향(2023.04)

[부록]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(2023.04 잠정)

(단위 : 십만\$, %)

	전국					인천				
	수입		수출		수지	수입		수출		수지
	금액	증감	금액	증감		금액	증감	금액	증감	
반도체	89,723	-14.0	118,775	-33.7	29,052	11,420	-20.2	13,662	-7.0	2,243
자동차	20,747	20.5	79,990	29.7	59,243	1,564	34.4	7,138	60.8	5,575
기계장비	61,317	12.6	56,638	-9.6	-4,679	4,068	12.1	4,830	12.3	763
바이오-의약	7,356	-33.5	4,991	5.8	-2,365	626	63.6	3,384	32.9	2,758
바이오-화장품	1,706	-3.0	6,667	-4.3	4,961	19	-21.6	1,323	-26.3	1,304

* 자료 : K-stat 무역통계 '품목별, 지역별 수출입 통계' 참고 및 재구성

* 주1 :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품목명은 순서대로 △전자기기와 그 부분품, 녹음기·음성재생기·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·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·부속품(HS85) △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, 부속품(HS87) △원자로·보일러·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(HS84) △의료용품(HS30) △정유와 레지노이드, 조제향료와 화장품, 화장용품(HS33) 등

2 :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 동월 대비 비율로 표기

건설

건설현장 불법하도급, 채용강요 등 단속·처벌 강화



#국토교통부

- 당정은 2월 21일 마련한 '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'의 후속 조치로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건설기계관리법」, 「사법경찰직무법」, 「채용절차법」, 「노동조합법」 등 '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' 개정을 추진
 -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부당행위 유형별 처벌 근거를 신설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을 확보하고, 단속을 강화할 계획
 - 국토교통부는 이달 내 △불법행위 처벌조항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△공사방해·금품요구 및 수수·운송 거부 처벌 근거 신설 △채용강요 제재 수준을 형벌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관련법의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
 -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여 노·사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, 특히 건설근로자의 근로여건을 악화시키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예정
 - 또한 건설현장에서의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, 표준근로계약을 이용한 개별 근로계약 체결을 유도하여 건설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계획

교통

국토교통부, 도심항공교통(UAM)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 추진



#국토교통부

- 국토교통부는 5월 12일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(이하 'UAM 팀코리아') 제6차 회의에서 도심항공교통 2단계 실증사업을 위한 수도권 실증 버티포트 입지를 공개
 - 총 7개 버티포트로 구성된 노선도는 아라뱃길 노선, 한강 노선, 탄천 노선으로 구분하여 3단계로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, 노선은 안전 등을 고려하여 강 위로 선정

단계	기간	노선	주요 목적
1단계	2024년 8월~2025년 3월	아라뱃길 노선 (드론시험인증센터~계양신도시)	준도심에서의 안정성 검증
2단계	2025년 4월	한강 노선 (김포공항~여의도공원~고양킨텍스)	공항 및 한강회랑에서의 실증
3단계	2025년 5월	탄천 노선 (잠실헬기장~수서역)	도심 진출을 위한 최종 검증

-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5년 말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본격 준비하기 위해 UAM 팀코리아를 정책, 기체·운항, 인프라, 교통관리, 부가서비스 등 5개 실무분과 체제로 구축하고, 각 실무분과 아래 세부 워킹그룹을 구성할 계획

#국토교통부

-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환대출의 취급은행이 5월 안에 5대 은행으로 확대될 예정
- 국토부의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, 부부합산 연소득 7,000만 원 및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전세대출을 대상
 - 동 상품은 지난 4월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하였으며, 5월 15일에는 국민·신한은행, 19일에는 하나은행, 26일에는 NH농협은행까지 취급은행이 확대될 예정
 - 동 대출의 대출한도는 2억 4,000만원(보증금의 80% 이내)이며, 연소득과 주택 보증금액에 따라 연 1.2~2.1%의 금리가 적용
 - 전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경매가 시작됐더라도,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고 임차권 등기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용 가능

#중소벤처기업부

- 5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의 인재 양성, 성장단계별 육성 및 스케일업 지원체계 정비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생활 속 혁신기업가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담은 '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방안'을 발표
- 라이프·로컬에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·유니콘 기업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아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'라이콘(Lifestyle&Local Innovation Unicorn, LICORN)'으로 브랜드화하고, 제조기반·혁신서비스 접목에 따라 △라이프스타일형 △로컬크리에이터형 △온라인 셀러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
 -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방안 주요 내용

세부과제	주요 정책
브랜드화 및 창의인재 양성	(브랜드) 기업가형 소상공인 브랜드화 및 유형화
	(인재양성) 로컬콘텐츠 대학 지정·운영, 부처(문체부 및 국토부)연계 인재양성 (교육인프라) 콘텐츠기반 장인대학·지역창업가 양성프로그램 운영, 혁신허브 구축
성장단계별 라이콘 육성	(발굴) 아이디어 발굴(피칭대회) 및 맞춤형 창업 컨설팅, 체험형 창업지원
	(고도화) 개방형 혁신·IP창출 지원, 소상공인·기업 협업 강화, 기업가형 온라인 셀러 양성
	(사업화) 우리동네 펀딩 및 민간투자연계 매칭 용자, 정책자금 지원
	(상권창업) 상권기획자 및 로컬크리에이터의 연계·협업을 통한 로컬브랜드 육성
스케일업 지원체계 정비	(스케일업) 상권기획자 도입, 민간 액셀러레이터 연계,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민간 주도
	(민간자금 유입) 전용 자금 신설, 지역엔젤 모펀드 조성, 지분전환계약 및 사업권 투자 (중장기) 법 개정을 통한 자원군거·인증제도 마련, 임대료 감면, 수출 및 R&D 지원

#국토교통부

- 국토교통부 및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수도권 광역버스의 좌석예약 노선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·발표
 - 광역버스 좌석예약은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좌석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류소 대기없이 바로 광역버스에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로, 2017년부터 '미리(MiRi)' 앱을 통해 예약서비스를 제공
 - 국토부는 현재 경기 고양시·수원시 등 23개 노선에서 39회 운행하는 광역버스를 8월까지 50개 노선, 243회 운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,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
 - 하나의 어플만 이용할 수 있었던 예약시스템을 롯데카드앱(디지로카)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, 네이버·카카오 계정과 연동한 간편회원가입이 가능하게 하여 예약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
 - 또한 △노선, 시간, 정류소 즐겨찾기 기능 추가 △버스 차량번호 및 도착알림 서비스 제공 △예약버스 전용 로고 및 탑승장 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할 예정

#해양수산부

- 해양수산부와 규제혁신추진단은 수출입 활동의 기·종점인 항만에서 항만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규제를 합리화하고, 항만의 이용편의를 증진해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'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 방안'을 마련·시행
 - 금번 개선안은 항만물류의 프로세스에 따라 △항만/배후단지 분야 △입항/출항 분야 △선적/하역 분야의 3개 분야에 대하여 8가지 과제로 구성

분야	목적	개선 사항
항만/배후단지	항만배후단지 신속 개발	• 「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」 상 경미한 사항의 범위 확대 •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업무 위임범위 확대
	항만구역 친환경 에너지 확대	• 친환경 에너지 시설 도입 근거 명문화(항만법 개정)
	항만물류데이터 활용범위 확대	• 항만물류데이터에 연구기관·대학·벤처기업 접근 허용
입항/출항	입출항 신고자료 입력방법 개선	• CCR 기술 활용한 선원·탑승객 정보입력 편의 개선
	입출항 절차 간소화	• 선박 일시 이동 시 세관·출입국관리소 입출항 중복신고 간소화
	항로·정박지 유지준설 체계 개선	• 비관리청 준설공사 허가기간 단축 • 지속 모니터링 강화 및 적기 준설예산 확보
선적/하역	항만 검수업 등록기준 합리화	• 항만별 물동량을 고려한 검수업 등록기준 및 인원 조정
	원활한 양곡물류 처리	• 대형 양곡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위한 양곡 물동량 및 대형 양곡부두 필요성 재검토

#해양수산부

- 해양수산부는 5월 17일 김·참치의 뒤를 이을 후속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1,000만 달러 수출기업 100곳을 육성하는 내용의 '글로벌 시장 선도 K-블루푸드 수출 전략'을 발표
 - 최근 수산식품이 '블루푸드'로 재정의되며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미래 식량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, 한국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역시 성장세로 지난해에는 수출 30억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
 - 이에 해수부는 블루푸드 선도국가 도약 및 2027년까지 수산식품 수출 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, △품목 수출 확대 △가공역량 강화 △수출지원 △산업 성장 기반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
 - 품목 수출 확대를 위해 김·참치 등 기존 핵심품목의 지속성장을 추진하고 스타·예비품목을 발굴·육성하며, 소비트렌드 맞춤형 식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예정
 - 또한 수출 확대 및 산업 성장기반 마련을 위하여 수출기업 성장 지원하기 위한 우수 기술·인력·추진체계 마련 및 글로벌 K-블루푸드 마케팅 강화를 추진

#문화체육관광부

- 정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'2023 여행가는 달'을 맞아 내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숙박·교통 등의 혜택 및 참여 방법을 발표
 - 전국 단위로 적용되는 할인으로는 △교통 △숙박 △놀이거리 등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이용료 할인 및 환급을 제공하며, 국민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바가지요금 등의 불공정행위와 환대서비스, 청결, 안전관리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
 - '여행가는 달' 동안에는 △관광결합 KTX △관광열차 6개 노선 △지방공항 도착 항공편 △시티투어버스 및 렌터카 등 교통편과 온라인을 통한 전국 숙박시설 예약 및 한국관광 품질인증숙소 이용 등 숙박에 대한 요금할인을 제공
 - 전국 유원시설을 예약 결제하거나 네이버플레이스에 등록된 캠핑장 이용 시 1만원 할인쿠폰 제공 또는 포인트 환급
 - 이에 더해 '여행가는 달'의 공식 누리집에서는 △K-컬처 △미식 △반려동물 동반 등 여행테마에 따라 여행객 특성별로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프로그램을 구성한 '여행 트렌드관'을 운영하며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
 - '여행 트렌드관'에는 행사기간에만 이용가능한 특별한 여행프로그램을 별도로 준비하여 국내 여행의 매력을 더하고, △청년관광공모전 △이동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여행 △개그맨 김해준과 함께하는 '같이가 준' 이벤트 △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댕댕버스 등 온·오프라인 행사와 '여행가는 달'을 연계하여 진행

참고 자료

- 중소벤처기업부, “세계(글로벌) 창업대국, 한국형 초격차 창업기업(스타트업)이 선도한다.”, 2023.05.10.
- KDB미래전략연구소, 「국내외 유니콘 기업 현황과 시사점」, 이슈브리프, 2019.11.04.
- KDI, 「나라경제 3월호 이슈 - 글로벌 비즈니스의 주역 된 스타트업」, 2023.03.
- 포스코경영연구원, 「스타트업이 경제지도를 바꾼다. - 넥스트 실리콘밸리를 꿈꾸는 세계의 스타트업 클러스터들 -」, POSRI 이슈리포트, 2018.09.20.
- 포스코경영연구원, 「투자 스타트업, 넥스트 유니콘 될까?... 내재된 성장 DNA부터 남달라야」, POSRI Issue Brief, 2023.02.08.
- CB infights, “\$1B+ Market Map: The world’s 1,206 unicorn companies in one infographic”, 2023.04.11.
- PitchBook, “Unicorn compaines tracker”, 2023.05.01.
- 중소벤처기업부, “2022년 국내 유니콘 기업은 22개사”, 2023.02.09.
- 중소벤처기업연구원, 「국내외 유니콘 기업 분석 및 국가별 유니콘 생태계 연구」, 정책연구 20-27, 2020.12.31.
- 산업연구원, 「하드웨어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요인과 시사점: 국내외 유니콘 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」, 이슈페이퍼(ISSUE PAPER) 2022-11, 2022.10.24.
- 주간조선, “올해만 4개... 유니콘 기업 왜 갑자기 늘었을까?”, 2021.08.18.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“과기정통부, 정보통신기술 분야 유망기업, 미래 거대신생기업(유니콘)으로 키운다.”, 2022.05.19.
- 중소벤처기업부, “세계(글로벌) 거대신생기업(유니콘)을 꿈꾸는 후보기업을 모집합니다!”, 2023.03.05.
- 중소벤처기업부, “세계적인(글로벌) 초격차 창업기업(스타트업) 육성 정책(프로젝트), 올해부터 본격 시행!”, 2023.01.09.
- 중소벤처기업부·금융위원회, “「혁신 벤처·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」 발표”, 2023.04.20.
- 매거진한경, “김재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팀장 “지난해 45명의 청년 창업가 배출, 매출 110억·신규고용 112명 성과””, 2021.06.10.
- 경기일보, “인천 덩치 큰 스타트업 입주 공간 부족...유망 스타트업, 서울·판교 줄 이전”, 2022.11.21.
- KDB 미래전략연구소, 「주요국의 스타트업(Startup) 지원방식과 시사점」, 산은조사월보 제761호, 2019.04.
- KOTRA, 「START UP 해외진출 첫걸음 GUIDE BOOK : 중국」, 20219.12.31.
- S&T GPS, “중국, ‘대중창업 만중혁신’ 심화 추진 5대 방안 발표”, 2019.06.05.
- 동아일보, “일본·중국·이스라엘의 최신 스타트업 지원·육성 정책은?”, 2022.11.03.
- 중소벤처기업연구원, 「해외 주요 스타트업 육성정책 심층연구」, 2021.12.31.
- S&T GPS, “일본,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(안) 발표”, 2022.11.24.
- KOTRA 해외시장뉴스, “일본의 스타트업 정책과 시장 기회는”, 2023.05.04.
- KOTRA, 「일본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우리의 진출방안」, 2019.01.31.
- 전자신문, ““아기유니콘 수도권에 84% 집중””, 2022.07.13.

- 경인일보, “‘창업의 바다’ 인천시, 2026년까지 기술 기업 1만6천곳 육성”, 2023.03.14.
- 인천일보, “‘가치 1조 이상’ 유니콘 기업, 인천서 나올 수 있을까”, 2022.09.20.
- 산업연구원, 「지역 예비유니콘의 현황과 정책 과제」, 2023.03.29.
- K유니콘 홈페이지
- 통계청, “분기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(2023년 1/4분기)”
- 국가통계포털(KOSIS), ‘서비스업동향조사’
- K-stat 무역통계, ‘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’ 및 ‘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’
- 대한민국 정책브리핑, “건설현장 ‘특사경’ 도입…불법하도급, 채용강요 등 단속·처벌 강화”, 국토교통부, 2023.05.11.
- 대한민국 정책브리핑, “내년부터 서울 상공에 ‘드론 택시’ 뜬다…실증사업 추진”, 국토교통부, 2023.05.12.
- 대한민국 정책브리핑, “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‘대환대출’ 5월 중 5대 은행으로 확대”, 국토교통부, 2023.05.15.
- 대한민국 정책브리핑, “생활·로컬 분야서 기업가치 1조원 이상 ‘라이콘’ 육성”, 중소벤처기업부, 2023.05.16.
- 대한민국 정책브리핑, “광역버스 좌석예약, 8월까지 50개 노선으로 대폭 확대”, 국토교통부, 2023.05.16.
- 대한민국 정책브리핑, “정부, 항만물류 규제개선…항만 배후단지 개발 활성화 도모”, 해양수산부, 2023.05.16.
- 해양수산부, “K·블루푸드 세계화를 위한 수출 확대 추진”, 2023.05.17.
- 문화체육관광부, “‘대한민국은 절찬 여행 중’, 6월 여행가는 달에 여행 버킷리스트 완성하세요”, 2023.05.17.

인천 경제산업 ISSUE&TREND

제23-4호(2023.05.26)

발 행 처 인천연구원
발 행 일 2023년 05월 26일
주 소 (22711)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
전 화 032-260-2600
홈페이지 www.ii.re.kr

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.
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, 원고의 무단전재, 복제, 배포 등
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.